

출판인과 어린이가 어우러진 축제

'제27회 볼로냐 아동도서전시회'를 통해 본 아동도서의 흐름

文二慶

웅진출판 편집개발부 대리

비행기가 모스크바에서 잠시 멈추었다. 1990년 4월 1일 새벽, 서울과 유럽간 소련 상공을 경유하는 직항로가 개설된 후 민간 항공기의 첫 취항을 기념하기 위한 임시 기착이다. 모스크바의 땅을 밟고 서서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서울을 생각함은 이번 여행목적과 어울려 갖가지 상상을 가져다 준다.

옛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도시 볼로냐는 중세 이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왔다. 세계 최초로 대학이 자리를 잡고, 바로 그 대학에서 인류 최초의 인체해부가 이루어질 만큼 개방성을 지닌 탓인지, 지금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본거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 보수와 진보, 폐쇄와 개방의 여러 얼굴을 지닌 도시이다.

중세의 고풍스런 궁전과 성당, 공회당 등이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고, 몇 백년 되는 고색창연한 건물에 현대식 인테리어를 한 아케이드가 들어서 있는 거리들. 자그마한 동상 하나를 몇년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창녀출신의 현역 국회 의원이 주연(?)하는 포르노 영화가 중앙극장에서 상영되고 있기도 하다. 좁은 골목들이 온통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 행선지를 목전에 두고도 갈피를 잡을 수 없고, 그래서 차를 두고 걸으면 한 시간 이내에 웬만한 거리는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자그마한 도시 볼로냐. 어찌 보면 아동도서전시회 외에도 세계적 규모의 전시회가 잇달아 이곳에서 열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서울과 비교되면서 뒷맛이 씁쓸하다.

전시장은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200여 평 규모의 대형 홀 여섯개에 마련된 볼로냐(Bologna) '아동도서전시회'(Fiera del libro per ragazzi: Children's Book Fair)의 전시장은 4월 5일부터의 나흘간의 공식 일정을 앞두고 할당된 공간에 도서를 전시하고 요모저모 꾸미느라 오고가는 여러나라 출판사 직원들로 어수선하다. 그러나 우리네처럼 종이 상자에서 책을 꺼내 진열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일을 마무리짓는 곳은 없는 듯하다. 대형 컨테이너에 온갖 인테리어 비품들을 싣고 와서는 출판사 로고나 마크를 걸고, 대형 POP으로 자기 출판사를 대표하는 동화의 주인공을 내세워 꿈나라를 만드는가 하면, 응접 세트마저 준비된 것으로 교체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그들의 준비는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진다. 폭넓은 선전을 위해서 책의 매 페이지마다

자신이 의도하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글을 덧붙여 놓거나 다양한 선전 팸플릿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들이 이렇듯 열의를 다해서 준비를 하는 까닭에는 나름대로의 전시회 참가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홍보전을 통한 시장개척

우선은 여타 다른 목적을 위한 홍보가 첫째인데, 그 목적이 꺾이나 다양해 보인다.

1) 먼저 도서의 수출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을 위한 번역작업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대개 영어나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여 놓았는데, 특히 새로 개발된 신간도서의 경우는 위에 언급한 다양한 홍보수단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2) 다음은 저작권의 수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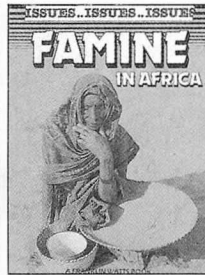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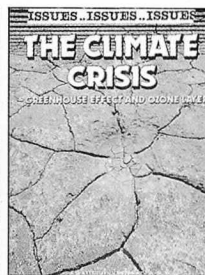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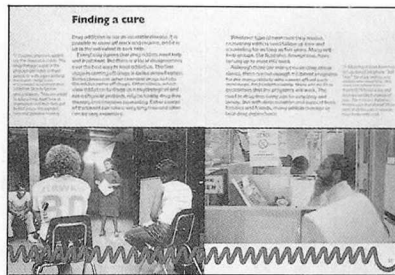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전시를 위한 공간과 상담을 위한 공간을 함께 갖추고 있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등은 소규모 참가출판사를 위한 저작권 상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놓아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 수출이 유망한 도서에 대해서는 전시된 책마다 이미 수출된 나라나 그 언어권을 표시해 놓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표시를 해 놓는다.

3) 기획된 도서의 개발을 위한 관련분야와의 상담도 주요목적에 든다. 즉 기획된 도서를 표지 장정만 해놓은 채, 그와 관련된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등을 만나 계약 상담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시회에는 출판사만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개인명함이나 작품집 등을 한 보따리씩 싸들고는 분주히 오고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방식으로는 출판·편집 대행사 또는 카피라이트 전문회사 등이 출판사들과 똑같이 자신들의 공간을 마련하고 각 출판사들의 상담에 응해 주는 경우이다. 이들도 자신이 출판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책을 진열하고는 고객을 기다린다.

4) 이런 실제적인 목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관련분야의 정보교환이나 수집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조심스러워서 특수도서나 입체도서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이



영국의 알리던북스사가 출판한, 10~14세 아동들을 위한 기획시리즈물 '이슈스'.

나 도서판매를 꺼리는 듯하다. 물론 전시장 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까닭도 있지만, 공공연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는 저작권의 보호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라 느껴져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5) 끝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이런 목적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화교류일 것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참가규모도 다양하다.

이번 전시회에는 60여개국에서 1,200여 출판사가 참가하였는데, 가장 많은 출판사들이 참가한 영국(132사), 이탈리아(128사), 프랑스(74사), 미국(65사), 독일(61사) 등이 나라별로 각각 나뉘어 대형 홀에 분산되어 있고, 다른 나라들은 걸달린 양 그 나머지 공간을 채우고 있다.

이들 출판대국들은 출판사별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 프랑스의 갈리마르 출판사(Edition Gallimard)나 바야르 출판사(Bayard-Press), 영국의 BBC Books 등은 단위공간의 예닐곱 배가 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고단샤도 이에 버금가는 규모로 참가하여 부러움을 안겨 준다. 그의 출판사들은 보통 단위공간과 그에 덧붙은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거나 연합으로 마련된 공동전시대와 상담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판사별 참가 외에 우리나라처럼 출판협회를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공동참여가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처럼 지역 차원에서 공동참여를 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 전시대는 '89년도 전시회에서는 일본 출판사들 옆에 자리했었지만, 이번에는 영국출판사들과 함께

있게 되어 나름대로 독자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어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개별 출판사로 계몽사가 단독참가하여 국내 출판사의 발전된 모습을 대할 수 있어 좋다.

한편 동서화해의 국제기류 때문인지는 모르나 상당수의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의 참가가 의외였다. 소련을 비롯해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동독과 중국이 눈에 띈다. 이에 비하면 오히려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는 훨씬 뒤쳐진 느낌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싱가포르, 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이지 않는다.

가속화되는 어린이책의 입체화

저마다 자랑스럽게 내놓은 다양한 어린이책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음은 큰 즐거움이다.

역시 주류는 '이야기 그림책'인데,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세분화된 모습을 띠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한편의 동화책에 여러 동화가 함께 실려 있는 책은 거의 볼 수 없다. 국배관 중심의 큰 판형에 하나의 이야기를 수준높은 그림과 함께 싣고, 양장을 한 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작가와 삽화가가 동일한 비중으로 존중된다. 어린이책의 입체화 경향은 들던 바대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Pop-up Book, Toy Book, Activity Book 등은 거의 모든 출판사들의 기본메뉴 같아 보였다. 여기에 향기나는 책, 소리나는 책, 움직이는 책 등도 국내에 소개된 바와 비슷하다. 새로운 것은 특수인쇄에 의한 야광책으로 영국의 Claiborne Publications에서 개발한 어린이용 자연관찰책이다. 밤하늘의 별을 보듯 책을 보는 것이 신기하

출판선진국에서 나오는 아동도서의

특징은 독자의 세분화에 있는 듯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발달단계에 따라 독자층을 세분화하고,

이를 도서목록이나 책 자체에

명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내용의 사회성'으로서,

가령 단순한 칼리링북에서조차

그 내용이 그들의 사회와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 야간특수형광지도를 개발한 기술이 아동도서에 응용된 예이다.

이처럼 어린이책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점점 복합적으로 응용되리라 생각이 든다.

입체도서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동화물에 한정되던 Pop-up 기술이 매우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자연과학 도서에 적극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점이다. 프랑스의 Bias Edition은 물론 갈리마르 출판사 등과 미국의 National Geographic Society도 이 분야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야를 유아용 도서에 한정되는 것으로, 또 편집자의 장난스런 '끼' 정도로 여겨온 나를 흔들어 깨우듯이 성인만화에 응용된 Pop-up의 묘미는 웃음을 한껏 선사해 준다.

아동도서전시회에 웬 성인만화가 나오는가

싶지만, 이것은 전시회의 명칭에서 기인한다. 이탈리아어의 ragazza는 청소년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지닌다. 이것이 영어로는 'Children' 이 되고, 우리말로는 '아동'이 되면서 국민학생이하만을 뜻한 좁은 의미로 이해된 것이다. 이 때문인지 아니면 참가출판사들의 과시욕 때문인지 모르나, 라틴계 쪽은 청소년을 포괄하는 폭넓은 도서를 전시하였고, 영미 쪽은 보다 좁은 의미의 아동도서 중심으로 전시된 인상이었다. 그러나 주최국인 이탈리아는 이를 뛰어넘어 종교서적, 관광안내서 등까지 진열하면서 홈그라운드 의 이점(?)을 누리는 듯하다.

폭넓게 볼 때 출판선진국들의 아동도서의 특징은 '독자의 세분화'에 있다.

태어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독자층을 세분화하고, 이를 도서목록이나 책 자체에 명시하고 있다.

0세에서 3세, 3~5세, 5~8세, 7~10세, 10~12세, 12~14세, 14~17세 등 겹치기도 하는 연령구분을 통해 보다 알맞은 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 자연, 우주, 사회, 역사가 각각 알맞은 양식으로 재편집되면서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엮어낸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를 보면 부끄러울 뿐이다.

출판의 역사가 짧지 않으면서도 전래동화, 명작동화, 위인전기, 학습백과 등을 빼고 나면 전시회에 낼 것이 없고, 또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미진한 우리네 아동도서의 실정인 것이다. 출판사 자체의 출품에 의한 것이라 그런

지, 종이상자를 열어 전시하려고 펼쳐 놓은 책의 80%가 위에 열거한 전집류의 중복이다.

'우리 것' 개발이 남겨진 과제

출판 선진국들의 아동도서의 또다른 특징은 '내용의 사회성'에 있다.

거의 모든 출판사가 내놓고 있는 유년기 아동을 위한 색칠하기 책(coloring book)을 보더라도 그 내용은 그들의 사회와 문화가 바탕이 되고 있다. 떠나오기 전 국내서점에서 본 것으로는 딱 하나가 생각난다. '우리 나라 색칠하기'. 기와집, 초가집, 한복 등이 그려져 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나마 제목은 영문이었던가?

이런 면에서 영국 Aladin Books의 몇몇 기획들은 출판의 사회성을 잘 드러내 주는 것으로 보인다. 7~10세를 위한 기획인 'Let's Talk About'의 시리즈. 몇 가지를 소개하면 'Why Are People Hungry?', 'Why Do Wars Happen?', 'Why Do People Drink Alcohol?', 'Aids', 'Why Do People Smoke?' 등이다. 10~14세를 위해서는 'ISSUES'라는 기획 시리즈로 좀더 폭넓은 사회문제를 좀더 깊게 다루고 있다. 위와 중복되지 않는 것을 열거하면 'Crash! A New Money Crisis?', 'Terrorism', 'Human Rights', 'Healthy Food' 등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앞서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점점 강화되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하루 아침에 어찌 해 볼 방도가 없는 '자연과학 사진자료의 개발'이다.

순수한 마음에서 이 책 저 책 전시하라고 보낸 출판사가 있지만, 저작권으로 인한 그곳 분위기에 눌려 전시조차 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란 생각이다.

출판 선진국에 있어서도 대형 출판사와 소규모 출판사의 간격은 전시된 책으로 보아 이 분야에 있다. 문제는 비디오와 사진의 매체로서의 고유영역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인데, 아직은 별다른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 말한 Pop-up Book이 이 틈새를 가르며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정밀화 역시 자연과학 사진과 함께 발전해 가야 할 분야임을 전시된 책들이 말해 주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동도서삽화전이 열렸는데, 정밀화에 쓰이는 세밀한 선에 의한 묘사가 인상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의 다름이지,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이와 겨룰 만한 수준임을 확인한다. 문제는 얼마나 '우리 것'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돌아오는 비행기는 모스크바를 그냥 지나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로 변화되고 있는 저 땅. 서울의 출현에서는 국제도서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초행길이라 될 모른 채 돌아다니다 부끄러움을 한아름 안고 돌아오는 기분이지만, 반가운 소식에 부끄러움의 얼굴 붉힘이 풀리는 듯하다.

다시금 볼로나와 서울 그리고 모스크바를 생각한다. 우리네 아동도서의 봄은 저만치와 있는가.

빈들에서 줍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오로지 신앙과 의지 하나만으로
고난과 역경을 헤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한 여인의 인생이야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실명소설.

• 주경화 지음
신국판/220쪽/3,500원
규장문화사

140-023 서울 용산구 용산동 37가 6-2
TEL. 796-1072~4 FAX. 792-5811

영혼의 빛깔

하루하루를 詩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리고 나의 삶속에는
파스텔로 색깔을 입힐 수는
없는 것일까?
사랑을 베풀때, 사랑을 만들어갈때,
마침내 사랑의 빛깔, 영혼의 빛깔을 그려낸
교단작가 오인숙의 첫번째 시집.

• 오인숙 지음
신국판/105쪽/2,000원
규장문화사

140-023 서울 용산구 용산동 37가 6-2
TEL. 796-1072~4 FAX. 792-5811

브라이언과 캔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토록
아름답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토록
행복하게 하는가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교단작가 신상언의 스물네번째 글모음.

• 신상언 지음
(근간예정)
규장문화사

140-023 서울 용산구 용산동 37가 6-2
TEL. 796-1072~4 FAX. 792-5811

소망의 광세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보석같이 빛나는 예화들을 어쩔 그렇게도
많이 알고 있다가 싶을 정도로
해박하며
그 예화들이 우리의 삶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중견 여류작가의 완수에 가까운 에세이

• 강유일 지음
46판/128쪽/1,500원
규장문화사

140-023 서울 용산구 용산동 37가 6-2
TEL. 796-1072~4 FAX. 792-5811